



들려진 점

두드려서 들려지는 것을 적어 봤다. 어느덧 물의 소리가 묻어 난다고 믿고 있었다. 후에는 오른손 중지 둘째마디 뼈가 육신거렸다.

물이 흐르지 않을 때 효돈천을 걷다가 돌을 두드려 봤다. 돌에 물이 머무르는 흔적을 점으로 기록하면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드려 보기 시작했다. 지하수위 같은 방식을 돌에서 찾을 수 있을 꺼라 생각했다. 오른손 중지를 이용해서 노크했는데, 한 번 두드릴 때마다 다양한 음정과 질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. 의심이 들었지만, 찾고 싶었다. 음정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도 참고했지만,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아무도 없지만 모두 있는 효돈천에 어둠이 내려 앓기 시작했고, 같은 자리를 두드린다고 생각했지만, 매번 같은 자리일 수가 없고, 거대한 돌이란 몸의 구성을 다 알 수 없으니,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, 들려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. 들려진 소리에는 어떤 음정 뿐만 아니라 모양이 있었다. 그리고 하나의 지점이 아니고, 연결된 점들이 들려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.

*제주 서귀포 남원읍을 위치한 효돈천은 건천이다. 건천(乾川)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, 비가 오거나 하여 수량이 증가할 때에만 흐르는 하천을 뜻한다.

**지하수위(Water Table)는 지하수를 머금고 포화상태가 된 지표면 밑 성분들의 "표면"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.

